

[QT세미나]

QT적 삶을 살라

이상규 목사 / 1998 / 페이지수: 2

“QT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행한다면 그의 삶은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되어질 것어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이 한 절이 우리의 사고와 생활방식에 끼친 영향은 얼마나 심오한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는 무에서 유를 지어내셨다(Creatio ex nihilo).

그런데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신 방법이다.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창 1:3,6,9,11,14,20,24,26,29).

QT의 대전제

요컨대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 어떤 형상이나 모양도 보이지 않고 오직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이것은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던 고대 근동의 우상적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새롭고도 혁명적인 사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과 같은 물질주의적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는 우리들에게 창세기 1장은 QT의 전제이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남자와 여자)을 만드시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한다(창 1:26,27). 그렇다면 적어도 창세기 1장의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외모나 신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말하는 것’-말로써 명하고 이름 붙이고 통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선악 간에 판단하거나 말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것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만 참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자신의 흠 됨, 피조물 됨을 깊이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선악 간에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지혜요 삶의 본질이다. 듣고 나서야 말할 수 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며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listener)가 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speaker)가 될 수 있다. 이 순서를 무시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긴다. “정녕 죽으리라.”

창세기 1장의 구조

첫째 날 ~ 셋째 날 혼돈을 질서로	넷째 날 ~ 여섯째 날 공허를 충만케
1. 빛	4. 해 달. 별
2. 궁창	5. 새와 고기
3. 땅과 식물	6. 짐승과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삶

그러므로 인생은 QT를 모르건 알 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QT적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올바르게 QT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 하나님은 6일 동안 말씀하실 때 결코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루하루 분명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건축으로 비유한다면 먼저는 기초를 놓으시고 그 다음 상부구조를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QT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행한다면 그의 삶은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되어질 것이요, 그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모세는 모세 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에서 이 사상을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3)”

그리고 신약에서 40일 광야 시험 중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이다.

* 출처: QT신문